

마포구 '김대중 동교동 사저' 국가유산 등록

區, 소유주와 협의 기밀관 조성·교육 프로 운영 검토

마포구(구청장 박광수)가 2년 가까이 추진한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의 국가유산 등록이 지난 16일 최종 확정됐다.

앞서 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0년대부터 서거 직전까지 머물렀던 동교동 사저의 보존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사저를 국가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24년 7월 사저가 민간에 매각되자 구는 역사적 가치 보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즉각 행동에 나섰다.

먼저 해당 매입자인 현 소유주와 사저 보존 방안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를 나눴으며, 2024년 11월 소유자 동의를 받아 국가유산 등록을 신청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 동교동 사저 보존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국가유산 등록 추진 뿐만 아니라 사저의 가치 보존과 활용과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

아울러 구는 동교동 사저 주변의 환경 정비에도 주력해 사저 인근 도로 140m 구간을 '김대중길'로 명명·도로화해 공간의 상징성을 함축 높였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지난 10월28일 동교동 김대중 가족에 대해 조건부 가결을 결정하고, 30일간 등록 예고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6일 국가유산으로 지정했다.

구는 사저가 국가유산으로 최종 등록됨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 사저 보존추진위원회'를 '김대중 대통령 사저 보존위원회'로 전환해 사저의 가치를 더욱 높일 방안을 모색하고 본격적인 보존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소유자와 긴밀히 협의해 김대중 기념관 조성과 민간 연계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해 사저가 국민 모두의 역사·문화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장설 예정인 바다.

박광수 구청장은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족의 국가유산 최종 등록은 민주주의의 산실을 보존하겠다는 구의 노력과 지역의 자부심이 빛어낸 결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가족이 대표 근현대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역사적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민호 기자 mmh@sinimilbo.co.kr

관악구, 건축행정 '서울시 1위' 2년 연속 국토부장관상 달성

건축 인·허가 기간 준수율 호평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건축행정 평가' 일반 부문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이번 수상으로 2024년 특별 부문 장관상에 이어 2년 연속 장관상을 받는 쾌거를 달성했다.

건축행정평가는 1999년부터 시행해 온 제도로,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의 ▲능률성 ▲효율성 ▲책임성 등을 종합 평가해 건축 행정 운영에 힘써 온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올해는 전국 241개 광역,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일반 부문'과 '특별 부문'으로 구분해 평가가 진행됐다. 일반 부문은 ▲행정절차 합리성 ▲인건비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 행정 개선 노력 등을, 특별 부문은 불합리한 건축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 사례를 평가했다.

구는 건축인허가 처리 기간 준수율, 건축물 현장 안전관리 등 일반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서울시 자치구 중 1위를 달성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2년 연속 건축행정평가 장관상 수상은 관악구가 구민 중심의 건축 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며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진화된 건축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민호 기자 mmh@sinimilbo.co.kr

올해의 좋은정책 대상에 '강서구' (토마토 대한민국 좋은정책 대상) 전세사가 피해자 지원 높은 점수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2025 토마토 대한민국 좋은정책 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좋은정책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과 실질적 재정 지원, 나아가 중앙정부 특별법 개정까지 이끌어낸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

'토마토 대한민국 좋은정책 대상'은 뉴스토마토와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시상식으로, 국가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우수 법안과 정책을 선정해 시상한다.

올해 시상작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원, 공공기관 등 각 분야 수상자들이 참여했다.

강서구는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지역 연계를 고려해 사안 초기부터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와 바탕으로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소송비·주택 복귀비 지원 등 1000여명에게 약 10억원의 지원을 했다.

박소진 기자 zini@sinimilbo.co.kr



기부금 전달식
오송록 노환구구청장이 최근 구청장실에서 가수 진해성 공식 팬클럽 '해성사랑' 서울 지역별 기부금 500만원을 전달받고 기부자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사진은 전달식에서 오 구청장(왼쪽 네 번째) '해성사랑' 서울 지역별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송파구, 서울시 건강사업 성과대회 7관왕 쾌거... 구민 건강 증진 집중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서울시가 주관한 '2025년 건강사업 종합성과대회'에서 7개 분야 상을 휩쓸며 '건강 도시'의 위상을 입증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1년간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추진한 건강 증진사업을 평가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송파구는 지역 건강 통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건강 사업을 추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구는 이번 대회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부문 최우수상을 비롯해 통합건강증진·금연·결핵·대사증후군 관리 등 4개 부문에서 우수상을, 모자보건 부문에서는 '사업도움상'을, 식품위생 분야에서는 '노력상'을 받으며 총 7관왕에 올랐다고 17일 밝혔다.

최우수상을 받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분야에서는 당뇨병 초기 환자 관리에 집중할 점이 돋보였다. 구는 최근 당뇨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연속혈당측정기(CGPM)'를 활용한 체형형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환자 등이 직접 혈당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며 식습관을 조절하도록 유도해 자가 관리 능력을 크게 높였다.

구는 시·사각지에 해소를 위한 노력도 인정받았다.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당신 곁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장애인에 대상으로 대

사중후군 검진과 관리를 제공하는 '건강통행! 장애인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을 펼쳐 우수상을 받았다.

이밖에도 구는 지역사회 건강조사와 유관기관 협업체 운영 등을 통해 지역내 건강 문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보건복지부 주관 '제17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전막 부문에서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대우 기자 nice@sinimilbo.co.kr

문민호 기자 mmh@sinimilbo.co.kr

문민호 기자 mmh@sinimilbo.co.kr

문민호 기자 mmh@sinimilbo.co.kr

문민호 기자 mmh@sinimilbo.co.kr

도립천 보행 데크·전망대 설치 구로구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최근 도립천역 앞 보행데크에 '도립천 보행 데크와 전망대 설치 사업'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올해 8월부터 이달까지 보행길을 더욱 안전한 도로로 전환해 겨울을 나는 보행 데크와 도립천에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조성했다.

특히 새로 설치된 전망대에는 바스킨 등 소규모 공연이 가능한 무대 공간도 마련해 주민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복합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박소진 기자 zini@sinimilbo.co.kr

성북구도 방문건강관리 '최우수기관'에 뽑혀... 2년 연속 수상

성북구(구청장 이윤호)는 최근 서울시에서 주관한 '서울시 건강사업 종합 성과대회'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2년 연속 수상 성과를 거뒀다.

성북구보건소는 고령화과 건강요약과 협력해 노년 시대를 준비하는 노인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노

인 하악 예방을 위한 과학적이고 포괄적인 모델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한 하악 예방 프로그램은 구제형 건강 지표 개선 효과를 도출하며 주민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한원숙 성북구보건소장은 "이번 수상은 대학 협력 모델의 성과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노인 하악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성과를 거둔 성북구보건소의 노력을 평가하며, 지역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민호 기자 mmh@sinimilbo.co.kr

문민호 기자 mmh@sinimilbo.co.kr

문민호 기자 mmh@sinimilbo.co.kr

문민호 기자 mmh@sinimilbo.co.kr

문민호 기자 mmh@sinimilbo.co.kr

간추린 뉴스

강남구, 내일부터 LED 미디어쇼 '윈터페스타'

강남구(구청장 조병범)가 연말연시를 맞아 상설형 일대를 거대한 빛의 캔버스라 물들이는 '2025 강남 미디어 윈터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지난 10월 상설동 옥외광고를 자유표시구역에 '강남 아이즈(Gangnam Eyes)'로 브랜드한 이후 처음 선보이는 대형 행사다. 과거 도심 진입부의 성곽과 불탑에서 착안한 '윈터월(Wonderwall)'을 기본 콘셉트로 삼았으며, 전통의 빛을 현대적 미디어 기술로 재해석해 도심 속 새로운 빛의 풍경을 선사한다는 취지다.

구는 19일부터 오는 2026년 1월3일까지 16일간 상설동 5·6번 출구 앞 G20 광장과 K-POP 광장 일대에서 총 4개 건물, 17기의 대형 LED를 활용한 불탑형 미디어쇼를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축제 기간에는 시기에 맞춰 무 가지 메인 콘텐츠가 상영된다. 먼저 19~25일에는 크리스마스 테마인 '해의 빛 선물'이 송출된다. 서울의 상징 개리터인 해치가 산타와 루돌프로 변신해 빛으로 선물을 전하는 따뜻한 감성 스토리다.

이대우 기자 nice@sinimilbo.co.kr

동작구, 그늘막 15곳에 크리스마스 장식 설치

동작구(구청장 박익하)는 주민들이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지역내 그늘막과 연면적 인도광장·교통시설 등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설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기존 스마트 그늘막을 꺼드낸 디자인으로 주민 '그늘막 트리'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점을 중심으로 총 15곳(동별 1개 내외)에 설치했다.

특히 경관조명을 활용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거리 확장을 조성해 봄 뿐 아니라 야간 가시성을 높여 보행 안전도 강화했다. 이를 함께 가로·천구·연면적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동작 놀이터 포스트'도 마련했다.

구는 KBC국민은행의 후원을 받아 ▲노랑진역 인근(노랑진로 162-2) ▲중앙대병원 앞 교통섬(특수동 225-4) ▲청명어린이공원(신대방동 719) ▲사당역 만남의 공원(사당동 1043-14) 등 총 4곳을 다채로운 조명으로 장식했다.

포스트장은 공식 일문 10분 후 점등되며, 오는 2026년 1월17일부터 7주간 운영될 예정이다.

여영준 기자 yyy@sinimilbo.co.kr



박영준 구청장(왼쪽)과 유상현인종센터 운동지도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산구, 區보건소에 체력인증센터 조성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구민의 체력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용산구보건소 지하 1층에 '용산체력인증센터'를 조성하고, 17일부터 국민체육100·서울체력9988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

용산체력인증센터는 표준화된 체력측정과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원스톱) 체력관리 거점이다.

센터에서는 성인(남 19~64세)와 노인(만 65세~)으로 나뉘어 연령별 맞춤형 건강·운동 체력을 측정한다.

성인은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민첩성 ▲순발력 등을 평가하며, 노인은 ▲삼·하지 근기능 ▲심폐지

금천구, 일자리 창출 기여 우수기업 선정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지난 1년간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최근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10월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5% 이상' 이면서, '중간·인원 중 금천구민이 포함'된 금천구 소재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모집했다. 2024년 10월1일부터 2025년 9월30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경영안정성 ▲근로자 증가 규모 ▲근로자 증가율 ▲청년취업 지원 실적 ▲복지후생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업 6개사가 선정됐다.

구 따르면 선정 기업은 '(주)포토웍스', '(주)이노비스트', '(주)이노비스트', '(주)이노비스트', '(주)이노비스트', '(주)이노비스트' 등 6개사로 선정됐다.

구는 인증기업에 대해 인사노무 컨설팅,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등의 시·가정 부여, 첨단산업 전시회 선정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여영준 기자 yyy@sinimilbo.co.kr